

데스크 시각

김재열



서로 대칭되는 개념인 집중과 분산은 효율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5·16 이후 개발 논리가 지배하면서 국가나 조직 경쟁력을 한데 모으는 선택과 집중이 강조돼 왔다. 최근 몇 년새 대한민국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양분시킨 행정수도 이전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대립도 결국은 집중과 분산의 효율을 따지는 논란의 연장선상이다.

관 종사자들의 20%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오겠다는 이유는 단연 교육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순창군의 경우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003년 육천인제축을 설립했던 순창군은 지난해 서울대를 비롯한 다수의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해 화제가 됐다. 매년 줄어들던 인구도 늘어나 지난해에는 473명이 증가했다. 과거 광주지역 중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인 순천이나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금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전주 상산고에는 광주·전남 출신 학생 100여명이 재학 중이다.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해왔으나 10·26으로 실화에 옮기지 못했다. 5·6공 시절에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으나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만 초래했다. 당시 정부의 의지와 역량 부족도 원인이지만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예상보다 컸던 탓이다.

대선 주자 공약 점검을

벌써부터 정권 말기와 대선정국을 틈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서도 균형발전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간도 충분치 않다. 앞으로 5년 뒤면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아져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비수도권의 주장에 귀기울이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비수도권이 단합해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과 문화 등 지방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세우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한국 산업화의 역사는 수도권 성장과 동시에 지방의 피폐로 이어졌다. 수도권의 비약적 발전이 약동하는 성장 한국의 '빛'이었다면 쇠락해가는 지방의 모습은 '그늘'이다. 이제라도 수도권은 비우고 지방을 채워야 한다.

〈사회2부장〉ajkim@kwangju.co.kr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가족이 모두 이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주박부반 양산한다면 수도권 인근의 지방분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교통량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도권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빼내는 단순 재배분 구도로는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양대 축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 이동요인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전복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체 성적 5% 이내의 중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할 경우 고교는 물론 대학 학비도 지원하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교육활성화가 곧 지방자치 성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문화 등 매년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현 정부가 아무리 대못질을 해도 균형발전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노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시설

통합신당 경선 중단...파국으로 치닫나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경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2일 전북 합동 연설회와 3일 인천 합동연설회가 취소됐다. 경선 일정이 전격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통합신당 경선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경선후보들은 초반부터 동원경선과 대통령 명의의 도움, 당권 뒷거래설, 관권선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드는데 주력한 것이다. 경선을 국민 총투표 승화시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통합신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선 흥행에 실패한 통합신당이 경선 일정까지 중단한 것은 한심스럽다.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평균 20% 이하에 머물러 한나라당의 70.8%와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다. '바람'을 기대했던 광주·전남에서조차 20%대 초반에 그

쳤다. 그들만의 경선일뿐 국민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추태는 정치 혐오감을 키워 정당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왜 열린 우리당이 민주당과 분당해야 했는지, 100년 간다던 정당을 갑자기 해체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신당의 정체성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신당은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해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본선이다. 경선 과정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혀 본선 경쟁력을 잃게 한다. 경선후보들의 현재 지지율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선이 중단되면서 후보간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통합신당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려면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경선관이 깨어져서 당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지도부와 경선후보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광주상의 회장 선거 논란 불쌍 사납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상의는 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해 논의했으나 직전 회장의 재출마 자격 문제를 놓고 두 편으로 갈리어 논란만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상임의원 간 갈등만 깊어졌다고 한다. 광주상의가 또다시 파행을 겪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3월 19대 회장과 상공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투표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법정소송까지 가는 파행을 거듭했다. 법원의 중재로 가까스로 수습되기는 했지만 장기간의 회장 공백으로 인한 파행 운영은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또다시 1년6개월여 만에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지역 경제단체가 할 일은 못된 듯싶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마형철 전 회장의 출마자격 문제다. 한편에서는 마 전 회장의 재출마는 정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마 전 회장의 재출마는 지난해 직무정지 가져본 소송을 취할 당시 광주시 등 4자 합의사항을 깨는 것으로 보물선정위원 재공자의 출마는 절대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회장 선거 논란으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되는 안 된다. 지금 지역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의는 감투싸움으로 비치는 회장 선거 문제로 언제까지 타격태극하고 있을 건가.

광주상의는 갈등을 빨리 통합해야 한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상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파행이 장기화돼 지역 상공인은 물론 지역민까지 상의에 등을 돌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無等鼓

검찰이 '신정아-변양근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편지가 프랑스 전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 편지가 연서(戀書)였는지, 수신인은 누구인지 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다.

편지는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이 각료회의장을 떠날 때 옆구리에 끼고 있던 것으로 사진기자가 촬영,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단박에 시선을 끌게 됐다. 여성의 필체인데다 오래 보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문제는 "당신을 무한정 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리워요. 백만번의 키스"라는 대목이다.

한 일간지는 이 편지가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에게 보내진 것이며 연서가 아니라 부인의 친구가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친구는 한 TV에 출연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언론이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법석을 떠내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편지에 쓰인 동사가 여

성형이 아닌 점을 들어 남자를 수신인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이 왜 부인에게 쓴 편지를 갖고 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사건의 실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궁금증을 더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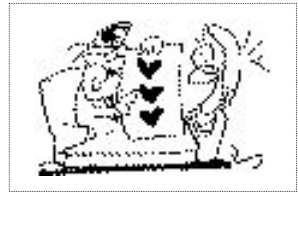
변 전 실장도 이베일 연서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하다가 결국 털어놓기에 이르렀고, 직권남용 등 울리면서 단박에 시선을 끌게 됐다. 여성의 필체인데다 오래 보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문제는 "당신을 무한정 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리워요. 백만번의 키스"라는 대목이다.

한 일간지는 이 편지가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에게 보내진 것이며 연서가 아니라 부인의 친구가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친구는 한 TV에 출연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언론이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법석을 떠내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편지에 쓰인 동사가 여

연서(戀書) 파문



각종 혐의도 불거져 나온다. 세간엔 남녀 사이의 단순 연애사건에 뒤 호들갑을 떠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단순 연애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여인을 위해 국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했고, 여인은 호가호위하며 기업들

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횡령까지 했다. 국내외적으로 고위층이나 유명인들이 연애사건 틀음으로 낙마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가 예산까지 엉뚱한 곳에 집행되게 한 예는 흔치 않았다. 이번 사건을 엄히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요즘 드라마 태왕왕사신기가 뜨고 있다고 한다. 잃어버린 고조선의 영토를 되찾았던 광개토태왕으로 배웅준씨가 출연해 시선을 잡고 있다. 문득 이 드라마가 가슴이 열큰해 지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필자는 최근 딸이 태어난지 4개월이 지나가면서 아이 유유를 자주 타서 주고 있다. 그런데, 평절을 앞두고 정수가 필터가 수명이 다해서 교체해 줘야 하는데, 필터를 구입하려 못가서 명절 연휴 포함해 10 여일 정도를 그냥 수돗물로 우유를 타 줄 수밖에 없었다.

가포르는 수돗물이 깨끗하니 그냥 먹어도 된다고 안내를 해 주었다. 그 한마디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과연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관광객들에게 수돗물 그냥 먹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을까? 대선 후보들이 장미빛 비전으로 항공 우주정책, 한반도대운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공약들을 내 놓고 있다. 그런데, 조상들이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물려주었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신광개토태왕 수돗물 정책

을 먹고 싶은데 웬지 수돗물을 끓여 서주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수재민들에게 팻병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북한 수재민이 아닌 한국 국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팻병에 담아 주었다고 하면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서울 시장은 그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을까?

삶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 대통령 후보가 취임 이후 4년 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회의나 강연장에서는 수돗물을 마시겠다고 천명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외국에서 최고층자들이 와서 수돗물을 자신있게 그냥 내 놓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하고, 이것을 지켜냈을 때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상수도 배수관을 정비하고,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쓰고, 대운하를 파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조상들이 물려준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을 되찾는 대업을 광개토태왕이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사명으로서 다음 대통령이 완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2006년 1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아이들과 '우리집 대피도 그리기'로 화재 대처를

부모나 보호자 없이 집안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집 화재 대피도 그리기'를 해보는 것이다. 집의 내부 구조를 그려보고 주방, 출입문, 인방 등에 가스의 화재발생 위치를 표시해 놓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곳의 대피로를 정한 뒤 실제 대피 연습을 해야 한다.

화재연기는 상층부터 가득 차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동안 낮은 자세를 유지한 채 기어가 하고 수건이나 옷가지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은 채 짧은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며 체험하는 이런 습관적인 연습과 기억속도는 실제 화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서희·광주시 관산구 송치동

기고

이승욱



외지인들에게 전라남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지 물으면 '남도 음식'이라고 말한다. 기름진 밥과 국물이 20여종이 넘는 반찬이 곁들여 나온 남도음식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남도음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음식문화도 경제적 수준과 시대상황에 따라 변한다. 과거에 어렵게 살 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했으나, 지금은 소득수준이 향상되

진하고 있는 '남도 좋은식단'이란게 있다.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고 한번 제공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공동음식은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집게와 국자·접시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업이다. 음식문화를 개선하면 먼저 업소가 이 익이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아 원가를 절약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함에 따라 음식에 대한 욕구도 변하고 있다. 맛을 추구하면서도 정갈스럽고 위생적이며 알뜰한 상차림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한다.

전남도내 실태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일반음식점이 2만6천여개에 달한다. 매년 2천여개가 개업을 하고 있으나, 2004년에 218개소, 2005년에는 261개가 문을 닫았다. 많은 음식점들이 영업중이지만 성공한 업소는 많지 않다 얘기다.

더구나 도내 인구는 매년 2~3만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시군마다 많게는 5~6천명에서 적게는 몇백명까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음식점을 찾는 도민들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도내 음식점의 주요 고객은 지역민만이 아니고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성공한 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음식문화 개선이 필수적인 이유다.

전남도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습관을 바꿔야하고 일손이 더 들 수 있어 쉽지 않은 일지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21세기는 관광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경쟁력 발전으로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단계에 있어 관광과 레저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관광과 레저산업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음식문화가 뒷받침해야 한다. 전남도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지리적인 여건과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음식문화가 '남도 좋은식단'으로 개선돼야 한다. 관광지를 하나 더 개발하는 것보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손님을 친절히 맞이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음식문화 개선은 업소만의 성공이 아닌 외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요인인만큼 음식점업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예식장 남은 음식 불우 이웃에 전해주었으면

학비를 벌기 위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의 경우 매주 주말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고스란히 버려진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누구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버리는 실정이다. 광주시에 모든 음식점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노숙자나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음식점 주변 음식점에 들어가 대충 한그릇 얻어먹고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비가 삼엄해 들어가서 못하고 아예 식권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음식장에서 한 번 상에 올랐던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은 정성스럽게 모아 불우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음식점은 음식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고 배고픈 사람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마다 남아서 누굴 준다고 생각할게 아니라 음식의 여유분을 다같이 나눠먹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던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중·고생들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 자원 봉사 실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수연·광주시 관산구 요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회 2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